

## 소견서

저는 광주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안을 잘 찾아내고 제안하는 몇 안되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명함에 ‘문화도시 백년대계 꿈을 키웁니다’라고 쓸 정도로 광주가 살 길은 문화와 예술로 잘 포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외칩니다.

대학에서 행정학과 중어중문학, 중국통상학, 미술사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와 미술학석사, 그리고 경영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를 다니고 있으면서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논어와 맹자를 원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 열정이 부럽다고 합니다.

지난 8년간 서구문화원장으로 있는 동안 매년 1~2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광주전남 근현대미술총서Ⅱ(2010)>, <무등산이 된 화가 허백련 오지호(2011)>,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의 표정(20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향한 도시+문화+경영(2013)>, <광주를 살리는 메세나운동(2014)>, <광주의 옛길과 새길(2015)>, <광주여성운동사(2015)>, <공공미술, 광주에 옷을 입히다(2015)>, <산 좋고 물 맑으니-광주의 정자227(2016)>. <色다른 모양꼴 다른 이야기-건축물 미술작품의 실태와 대안(2017)>, <양동시장에서 서창들넉까지(2017)>, <광주금석문, 아름다운 이야기(2018)>, <光州西倉(2018)>, <광주정신의 뿌리 놀재 박상(2021)> <광주풍경(2021)> 등을 단독 또는 일부는 공동으로 출간했습니다.

대부분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문화원천소스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책 출간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진행 중입니다. ‘문화도시 백년대계’를 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도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광주의 기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정리되어야 다른 분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현장을 다니는 이유는 다양한 시각에서 광주의 현안을 찾아 네트워크화하고 시너지를 높이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나 책들은 바로 지역 문화전략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광주의 미래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잘 다듬고 잘 키워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원이 이제는 지역학의 중추기관으로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기관이 되어야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문화원에 학예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으로서 중추적 인재의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원 회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7월 6일 정인서